

임안나 : 무기의 반대편 The Other Side of Arms

글. 유진상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Le spectacle, comme organisation sociale présente de la paralysie de l'histoire et de la mémoire, de l'abandon de l'histoire qui s'érige sur la base du temps historique, est la fausse conscience du temps.

역사적 시간의 기초 위에 수립된 역사와 기억의 마비, 역사의 방기(放棄)를 드러내는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스펙터클은 시간에 대한 허위의식이다.

Guy Debord, [La société du spectacle]

세계가 스스로의 거대한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자연현상을 통해서였다. 태풍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재해와 재난을 통해, 그리고 노화와 질병, 악의와 무지 등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불안정함을 통해 세계는 그것의 폭력성과 역량을 인간에게 수없이 환기시켜 왔다. 세계에 대한 전율과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 힘과 그것의 방대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도와 원칙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거의 모든 종교와 정치, 제도와 학문의 세세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여지가 각인되어있지 않은 곳은 없다. 심지어 자연과 인간이 야기하는 사건들의 우연성이 총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세계라고 부른다. 세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즉 앞에 대해 일정 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것의 현전(presence)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드러내어 왔던 것이다.

CNN이나 Youtube를 통해 접하는 세계의 무의식은 두 가지 면에서 과거의 세계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의 구체적 세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개인들의 사적 경험들, 선정성, 폭력성뿐 아니라 전쟁과 격렬한 죽음, 재난의 구체적 경과, 불가사의한 증거들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엄청난 숫자로 채워져 있다. 세계는 언제든지 그것의 가장 은밀한 세부들을 검색어를 통해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스펙터클이 되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사이버 채널들은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공간들을 붕괴시켰다. 세계는 일종의 피부처럼 우리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의 감각을 둘러싸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거리는 사라지고 기술적으로 세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지기 직전의 단계에 와있다. 휴대폰과 같은 탈착(wearable) 장치들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재적으로 무작위(random)적 연결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다. 세계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는 그것의 비-현실적 대체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임안나의 사진연작 [반복적 클라이맥스]는 무기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이 연작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의 공군 전투기들을 직접 격납고와 활주로에서 촬영한 사진들, 탱크와 장갑차들을 촬영한 사진들과 작은 프라모델 모형과 음식을 이용하여 전투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사진들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전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작가는 복잡한 절차와 허가과정을 거쳐 군용무기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적 과정 역시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군용기들은 주로 전투기들로, 실제로 CNN이나 Youtube와 같은 매체들이 전쟁의 이미지들을 통해 전달하는 바로 그 무기들이다. 대량파괴나 전복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가공할 무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 볼 수 없다. 이 비행기들이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이들이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곧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이 무기들이 실제로 폭격을 하거나 공습을 하는 영상들은 뉴스나 인터넷의 클립들을 통해 보게 된다. 적외선을 통해 촬영된 전쟁지역의 하늘에서 흐릿하게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들이 다량의 폭탄을 투하하거나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그것이다. 이 영상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세계가 잠재적인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탱크와 장갑차 역시 강력한 대형무기체계로서 전략, 전술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무력을 제공한다. 이 무기들이 지니는 아우라는 종종 전쟁 그 자체의 가공할 이미지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것들은 구체적 사물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아이콘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물들을 휘감고 있는 비-현실적 인상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무기들은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현실이 아닌 무의식을 지배한다.

임안나의 사진들에서 이 무기들은 밝은 조명을 받으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실제의 전쟁 영상들에서처럼 밤 혹은 여명을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사진작가의 피사체로서 모습을 드러낸 이 무기들은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도착한 여행자들처럼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억의 흔적들을 안으로 갈무리한 채 포트레이트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공격성이나 폭력으로 가득 찬 세계의 일면이 아니다. 그것은 정지되어 있는, 화려한 조명과 무대처럼 보이는 공간의 연극적 분위기 속에서 극히 사실적인 모습으로 공개되어 있는 심미적 대상의 가장 이상적인 자태처럼 보인다. 극적 연출의 효과는 이 피사체들을 둘러싼 조명들과 심지어 바닥에 놓여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극대화된다. 이 사진들은 이 무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작가가 이것들을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배우들의 사진처럼 가장 사실적인 것처럼 연출하고자 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보여준다. 작가는 이 무기들이 비-현실적 공간에서 현실적인 공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것들이 속해있던 폭력적인 무의식으로부터 내가 속해있는 구체적인 접촉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역이자 사진이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반대로, 작은 프라모델 병사들과 음식을 이용한 사진들에서는 이러한 영역의 대비가 거꾸로 전개된다. 작은 캔디나 과일, 음료수 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의 한 모퉁이에서 일단의 병사들이 나타나 사진의 음식을 공격하는 이 연작에서 현실은 가상의 무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은 병사 인형들은 하얀 테이블 위에서 솟아나 온 것처럼 흰색을 띠고 있다.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심미적일 정도로 밝고 하얀 정물의 공간이며 낮은 심도의 렌즈로 인해 공간은 전후로 흐릿하게 초점을 흐리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의 일상적 특성만큼이나 연극적으로 연출된 피사체들의 구성은 이 시공간이 사실적인 재현과 무의식적인 환상의 사이 어딘가에 놓여있음을 암시한다. 이 음식들이 함축하는 것은 달콤하고 쾌적한 현실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일면이다. 반면, 흰 탁보에서 솟아나온 듯한 병사들의 모습은 이 심미적 삶의 어딘가에 내재해 있는 무의식적이고 폭력적인 소외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군인들은 때로는 혼자, 때로는 집단으로 선명하고 유혹적인 색채의 음식들을 둘러싸며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성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극적 이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독특한 인물-정물화들에서는 세계가 단적으로 평화롭고 심미적일 수록 주체 역시 단적으로 외롭게 배제되어 있다.

이들을 정지시키는 사진적 순간은 이 비-현실적 사건을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 일어나 현재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영화와 달리, 대상들이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하나의 순간 속에 동결되어 있다. 사진이 기억을 지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임안나의 <반복적인 클라이맥스>는 사진적 흥분을 암시한다. 그것은 절정의 순간에서 정지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자본주의와 가상적 전쟁의 재현을 통해 세계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비등점(沸騰點)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사진적인 함축이 담겨있다. 사진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전쟁과 폭력, 공격성의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클라이맥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사진이 만들어내는 클라이맥스와 무기들이 상징하는 클라이맥스, 두 개의 레이어가 존재한다.

임안나의 사진 속에서 클라이맥스는 무기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 정지상태 그리고 극적 연출에 의해 생산되어 지속하거나, 혹은 고요한 탁자 위에 놓인 원색의 사물, 고립된 병사들과 흰색의 공간, 좁은 심도에 의해 만들어져 지속된다. 이 장면이 어떤 다른 순간들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 무기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폭격을 시작할 것이다. 병사들은 다시 환각 속으로 사라지고 일상은 습관적으로 다시 평범한 순간들을 반복할 것이다. 다만 사진 속에서 그것들은 예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는 이 사진들에서보다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더욱 공격성을 띠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기와 병사들은 임안나의 사진들 속에서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운명적으로 죽음과 파괴에 이르는 것들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강력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진은 그것들을 기억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정지시킨다. 임안나의 사진은 세계의 무의식이 어느 순간 그것의 기계를 멈추고 잠시 정적에 휩싸이는 순간을 보여준다. 사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다.